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가을학기와 2011년 봄학기를 University of Northern Iowa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강소망입니다. 미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순천향대학교에서 거의 시켜주었고, 10개월 동안 미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떠날 친구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글을 씁니다.

Honors 토플 선생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환학생 가는 것은 영어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영어공부한 것을 뽐내러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미국가서도 수백번 생각났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월등히 잘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더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에, 영어공부를 충분히 해서, 영어 때문에 힘든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메일 확인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한국 대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락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메일이 교수님께서 공지사항을 전달하시는 주요한 이용수단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취소되는 일이 있을 때에나, 숙제를 일러줄 때에나, 교실이 바뀌는 등의 수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메일로 통지를 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저도 이메일을 하루에도 3번 4번씩, 수업을 가기 바로 직전에 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이메일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운동경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하는 경기는 관람을 많이 했고, 관람을 통해서 미국 학생들의 운동 문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표현력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Marching Band의 공연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들과 술집 같은 곳에 가는 것 보다 건전하게 이런 곳에서 즐기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 등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하는 공연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팀이 와서 하는 공연을 많이 관람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녀와 야수를 디즈니 뮤지컬팀에서 직접 와서 공연한 것을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University of Northern Iowa 에는 writing center와 speaking center가 있습니다. 레포트를 써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writing center나 speaking center를 이용하기 보다는, 룸메이트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룸메이트에게 침삭을 부탁하기도 하고, 룸메이트에게 발음 교정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룸메이트와 더 친해질 수도 있고, 서로 더 편안한 관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룸메이트가 바쁠 때면, 같은 기숙사 사는 친구들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기숙사 내에서도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Lounge에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은 약 1달에 2번씩 정도 있고, house dinner라고 해서 같은 기숙사 식구들끼리 밥을 함께 먹으러 가는 것도 있어서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무슨 활동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참여를 많이 하면 기숙사 안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sident Assistance(RA)에게 기숙사 생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와 RA, 그리고 같은 복도에 사는 친구들과 친해져서, 방학 때면 호스트 가족 뿐 아니라 이런 친구들 집에도 하루 또는 이틀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말 재밌는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University of Northern Iowa 에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생들끼리 친해질 계기도 많고, 많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메일 체크나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서, 이 이벤트들을 놓치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10개월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특별한 날마다 국제학생 프로그램에서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특별한 날을 지낼 일은 없습니다. 이런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미국인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가도 괜찮고, 가서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 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국제학생패션쇼입니다. 제가 한국인 대표로 참가한 적도 있었고, 이를 통해서 각국의 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음악에 맞춰 등장하여 설명을 하고 뽐내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할 때도 재미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서로서로 사진 찍고, 많은 미국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좋아했습니다.

호스트 가족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University of Northern Iowa의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호스트 가족을 만드는 것을 신청하면 호스트 가족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챙겨주고, 미국에서 한국 가족들의 생각이 많이 나는데, 호스트 가족들로 인해서 저는 외로움이 많이 덜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호스트 가족이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가까운 미국인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University of Northern Iowa에 있는 conversational partner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UNI에서는 미국인과 타국인을 1 : 1로 연결시켜서,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회화 파트너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하여 붙여줍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서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회화 파트너를 신청한 미국인들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한 사람들이라서 다 친절하고, 취미사항 같은 것을 고려하여 맞는 사람들끼리 붙여주기 때문에,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학 때에는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학생 프로그램에서는 매 방학마다 국제학생 프로그램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국제학생들끼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호스트가족과 또는 친구들의 집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방학때 호스트가족과 또는 친구들의 집에서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혼자서 돌아다니며 관광하는 것 보다, 호스트 가족이나 친구의 집에 머물면서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공부하느라고 외국인들의 문화를 체험할 시간이 많이 없었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방학동안 미국 가정에서 지내면 미국 가족의 분위기와 문화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가족이 평소에 어떤 식사를 하는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 수 있었고, 미국 가족들과 지내면서 친척집에도 놀러가서 더 많은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방학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계획을 잘 짜서 후회없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10개월을 돌아보면서 알찬 시간을 보냈고, 많은 것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떠난 모든 사람들도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겁도 많이 나지만, 가서 지내면서 한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고 돌아오는 뿌듯함과 성취감과 함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Good Luck:)